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별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은

**김명수 ‘논문표절’**  
〈사회부총리〉

**정종섭 ‘고액보수’**  
〈안행부장관〉

**정성근 ‘음주운전’**  
〈문체부장관〉

이병기, ‘차떼기’ 사건 연루에 사돈기업 고문취업 논란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을 구성할 부총리 및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준비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 부당 재산증식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의 논문 중 현재까지 윤리성 시비가 붙지 않은 논문은 모두 1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11년과 2012년에 ‘교육과학연구’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받아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 밖에도 최근까지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주를 보유했던 적이 있는 점에 대해 교육공무원으로서 부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정치 특보로 일하며 이인제 의원 측에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개혁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 가지게 하는 국정원장 후보”라고 비판하며 반대 뜻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다. 더불어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돈이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정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이 구설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 달도 채 근무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다. 2011년 3월부터 3년간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1억458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단 2번만 회의에 참석하고도 2190만원을 받았다. 5건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도덕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85년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 6월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는 등 복무 중 학위 준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음주운전” 논란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정 후보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새정치연합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등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일도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행·미방·정보 ‘강대강’ 충돌 가능성

세월호 참사 등 강성과 배치...국토·국방은 순항 예상

후반기 국회 상임위 기성도

여야가 가까스로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 6월 임시국회를 정상가동하기로 했지만 상임위마다 만만치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강 충돌 예상 상임위=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안전행정부위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재난안전기본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을 다뤄야 하는 만큼 가장 많은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반기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구원(?)’이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미래창조과학부총동반위원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보위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

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강성과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왔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의 이철우 간사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재선으로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신경전을 벌일 개연성이 농후하다.

◇순항 예상 상임위는=반면 전반기에 철도과업 사태를 원만히 해결했던 국토교통위는 하반기도 협상 무드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중시하는 박기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김성태(새누리당)·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야 간사로 포진했기 때문이다.

또 국방위는 3성 장군 출신의 황진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간사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선임돼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어촌 지역 의원 중심의 농해수위도 위원장과 간사는 바뀌었지만 위원은 상반기 국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충돌이 덜한 상임위다. /박지경기자 jkpark@

7·30 재보선 브리핑

김명진, 광주 광산을 출마...“정치변화 바람 선도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명진(50)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25일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 변화의 바람을 선도하겠다”면서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실장은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치러지는 첫 국회의원 선거”라며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가장 먼저 정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새정치연합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수권정당·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야 한다”며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 4인 역임하는 등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일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눈높이 정치’, 시민 바로 앞에서 격의 없이 듣는 ‘경청 정치’, 시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해답을 찾는 ‘현장 정치’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진(50)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25일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 변화의 바람을 선도하겠다”면서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오, 나주·화순 출마...“분열·갈등정치 종식”

새정치민주연합 송영오(66) 상임고문이 25일 “분열과 갈등의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7·30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고문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나주·화순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겠다”며 “주민 모두가 하나 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고문은 “지난 34년여 동안 외교관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

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 외교통상부 의전장으로서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한 경륜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참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 상임고문은 나주 금천 출신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거쳐 외무고시(4회)에 합격한 뒤 주 스리랑카 대사, 주 이탈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의전장,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



송영오(66) 상임고문은 25일 “분열과 갈등의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7·30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대통령 ‘문화가 있는 날’ 참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DDP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간송문화전-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를 방문, 전시된 문화재를 둘러본 뒤 시민·학생 등 참관자들과 소감 등을 말하고 있다. /연협뉴스

총리인사 참사...청와대 인사시스템 바뀔까

여야서 외부인사위·당청인사위 설치 등 목소리 커져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경험한 청와대가 기존 인사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더 이상의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 약화는 물론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청와

대도 인사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이 고정 멤버이며 사안에 따라 유관 수석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박 대통령의 측근들로만 구성된다 보니 대통령의 의중만 살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문창극 전 후보자나 이번 개각에서 중용된 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비선’의 추천을 받아 사실상 ‘낙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

서는 벌써 ‘외부인사위 인사위 참여’나 ‘당청 인사위 운영’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당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손에 꼽히는 몇몇 핵심 친박들이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면서 “차제에 외부인사위원회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당권 레이스에 참여 중인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은 “차제에 외부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